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김지경**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수준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어떠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와 서열로짓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수준 보다는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았다.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작동되는 기제와 요인은 상이하며,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객관적인 요인보다 심리·정서 특성의 주관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취업 청년 집단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삶의 인식과 행복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이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현재의 행복정도에 대해 역설적으로 긍정응답을 하는 경향성은 청년세대 전반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일부 하위집단(중위소득미만+취업집단)에서 만 나타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주요어: 청년세대, 삶의 인식, 행복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협동연구 「일과행복(Ⅱ)」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년세대의 일과 행복’의 일부 내용이며, 2016년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2016.10.19)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jkkim@nypi.re.kr)

I. 서론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의 삶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의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불길로 뒤덮인 땅이라는 뜻의 ‘헬조선 지옥 불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을 탈출하여 외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탈조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성세대를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비꼰 ‘노오력’,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과 같은 표현으로 압축되어 설명된다. 패자부활이 없는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나오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초월한 청년들의 ‘노오력’은 한 사회 구성원의 자립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는 취업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그 경쟁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압박감과 낙오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청년세대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 이원재, 2016; 다음백과사전 2016.08.25. 검색;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6; 스티븐 J. & 로버트 K., 2015).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로 인하여 서구 선진 국가 청년들 또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 국가에 비해 한국은 사회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더블 플러스’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에 전반에 깊고 넓게 퍼져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집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블 플러스’로 강하다(오찬호, 2014). 이에 더하여 생존경쟁의 과정에서 청년들은 우리사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타고난 배경에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능력주의 사회이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모든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결국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계층, 부의 세습, 특권의 대물림, 시대적 상황 등 비능력적 요인(nonmerit factors)에 의해 ‘노오력’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며 절망한다(스티븐 J. & 로버트 K., 20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은 매우 다양한 개인의 내적·심리특성과 외적·환경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통해 보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질을 가질 때 행복감이 형성된다(Diener, 1984). 보편적인 욕구의 충족측면에서 본다면, 취업을 통한 소득원 확보와 높은 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의 마련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행복수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높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적응과 더 높은 수준을 바라는 열망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Esterlin)의 역설’(브루노 S., 2015: 85-88)이 있기는 하나, 소득원 확보의 기회

조차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생애 자립기반 형성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의 영향력과 삶의 안정성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클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청년세대가 스스로의 삶의 수준과 행복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 소득수준을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스털린의 역설’을 기점으로 소득 이외 개인의 성격특질을 비롯한 심리적 기제가 삶을 인식하고 행복수준을 인식하는데 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재우, 2017; 서봉언·김경식, 2016; 이기혜·김경근, 2013; 고영남, 2012; Diener, Oishi & Lucas, 2003; Heyes & Joseph, 2003; Diener & Seliman, 2002; Diener et al., 1999; Diener & Fujita, 1995; Diener, 1984). 삶의 수준과 행복,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전제하에 경제적 여건이나 경험과 같은 객관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심리학을 중심으로 성격을 비롯한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객관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별, 연령, 기혼여부, 학력, 소득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은 작고, 개인의 고유한 성격특성과 상황을 인식하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 또는 심리정서가 행복을 인식하는데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Diener, 1984, Diener & Rucas, 1999, Diener, Oishi & Lucas, 2003; 구재선·심의철, 2006; 구재선·서은국, 2011; 김재우, 2017).

한편 심리적 특성은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학력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능력과 구별되는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abilities)¹⁾으로서 취업경쟁의 성과 획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취업시장에서 선발권을 갖는 기업들은 ‘인·적성’이라는 명목 하에 까다로운 기준의 비인지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력의 선발과 배치, 승진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홍광표, 2016; 홍광표·김문길·결귀환, 2016; 김두선·서현주, 2015; 이왕원·정지연·김문조, 2015; 이자형, 2014; 이자형, 2013; 유봉호, 2013, Hall & Farkas, 2011; Farkas, 2003; Weel, 2008; Heckman et al., 2006; Mueller & Plung, 2006; Heckman & Rubinstein, 2001). 무엇보다도 심리적 특성은 성적이나 학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못지않게 부모의 지위와 계층 그리고 양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세대 간 전이(transmission)를 통해 청년세대 내 격차를 공고하게 다지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한신원, 2014; 이자형, 2014; Farkas, 2003).

1) 능력(merit)은 개인이 갖는 특성(스티븐 J. & 로버트 K., 2015: 12).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수준과 행복수준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세대를 일정한 연령대에 있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미 청년집단이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동질적 단일 집단이 아닌,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다 분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 분화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김지경·정연순, 2015;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청년세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하위집단으로 다 분화되어 각기 다른 영향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행복을 지각하는 것에도 집단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청년세대가 답하는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 수치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이다. 다양한 신조어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에 대해 높은 수치로 긍정 응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²⁾의 등장과 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대체로 인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134-135).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본다면,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 어떠한 기대 또는 희망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전반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행복감의 차이는 클 것이며, 그 인식의 차이에는 다른 어떠한 특성보다도 개인의 성격과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과 연계되는 심리·정서특성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청년들의 행복한 삶에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객관적인 요인들이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요인, 그리고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희망 등을 포함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삶의 인식’이나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는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고군분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수의 연구에서 대학생 또는 청소년과 같은 청년세대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2)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의 사토리(さとり)는 ‘득도, 깨달음’이란 뜻으로 양극화, 취업전쟁, 주택난 등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적 미래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지금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1980년대 중후반~90년대에 태어난 10대 후반~20대 중반의 일본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조선일보, 2015.02.24.; 김지경·정연순, 2015: 3에서 재인용).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오늘의 상황 하에서 청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상태와 행복에 대해 어떠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청년 개인의 성격 특성 및 심리적 특성들을 포괄하고, 동시에 절망적 미래에 대한 반사 현상으로서 높은 현재 만족도 등 청년세대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 세대의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세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다분화된 상태의 하위집단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과 취업상태를 중심으로 구분한 하위집단에 따라 현재 삶에 대한 인식수준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도의 영향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삶의 인식과 행복에의 영향 요인 고찰

1.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

개인의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지표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과 개인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가치관과 같은 내적 특성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봉연·김경식, 2016; 브루노, 2015; 고영남, 2012; Diener & Fujita, 1995).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객관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높고, 연령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다(서봉연·김경식, 2016; 이병관, 2013; 박현숙·권복순, 2006; 박선영, 2005; Park, 2005).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well-being) 등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삶에 대한 인식, 성격을 비롯한 심리·정서적인 특성 등 개인의 지각과 판단이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

인의 영향력이 더 크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김재우, 2017; 서봉언·김경식, 2016; 이기혜·김경근, 2013; 고영남, 2012; Diener, Oishi & Lucas, 2003; Heyes & Joseph, 2003; Diener & Seliman, 2002; Diener et al., 1999; Diener & Fujita, 1995; Diener, 1984).

주관적인 요인으로서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의 인지적·정서적 평가과정임과 동시에 판단과정(서봉언·김경식, 2016; 고영남, 2012; 차경호, 1995)으로서 개인이 행복수준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정서적 평가에 심리·정서적 특성이 관여된다.

2. 심리·정서적 특성 요인: Big5 성격특성

개인이 삶을 인식하고 행복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정서적 요인은 성격특성(personal traits)이라 할 수 있다. 성격은 유전적으로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갖는 기질(temperaments)과 성향(tendendies), 개인특성(characteristics)이 융합되어 타인과 차별화되는 개인 고유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감정 등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안정된 특성을 말한다(손주영, 2014).

성격특성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신뢰를 받는 모델은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 “Big-5(five)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격을 포함하는 실증연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강호철·이도화, 2016; 홍광표, 2016; 손주영, 2014). Allport와 Odbert(1936)가 인간 심리를 기술하는 18,000여개의 술어를 찾아내고 범주화시킨 이래, 다양한 심리검사로 측정된 성격특성들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Goldberg(1981)는 자신의 연구와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성격의 다섯 가지의 공통된 요소로 모아진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Big-5 성격특성(Big Five Personal Traits)’으로 정의하였다(김태준·백선희 외, 2015; 손주영, 2014).

‘Big-5(five) 성격특성’의 다섯 가지 요소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외향성(extraversion: E), 친화성(Agreeableness: A), 신경증 또는 정서불안정성(Neuroticism: N)이며, 이들 요소를 나타내는 영문 첫 자를 모아 ‘OCEAN 모델’이라 칭하기도 한다(강호철·이도화, 2016; 홍광표, 2016; 손주영, 2014; Goldberg, 1990; Costa & McCrae, 1985). 다섯 가지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증은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안녕감 등 개인의 성격과 행복의 관련성을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영남, 2012; 구재선·서은국, 2011; Casas et al., 2004; Fogle et al., 2002; McKnight et al., 2002; Ash and Huebner,

2001; Greenspoon and Saklofske, 2001; Huebner, 1991; McCrae & Costa, 1991; Argyle & Lu, 1990 외 다수).

이들 각 요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적·지적 자극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수용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적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또 나태한 삶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홍광표, 2016; 손주영, 2014; 이길환·이덕로·박상석, 2011; Roberts & Robins, 2000).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 특성으로 이 특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신뢰감을 준다. 또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취욕구가 높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계획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 조직성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손주영, 2014; 송준호·우문식, 2013; 이길환·이덕로·박상석, 2011; Costa & McCrae, 1985).

외향성과 친화성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형성하는 등 사교적이며 의욕적이다(손주영, 2014; 이길환·이덕로·박상석, 2011).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외향성이 높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사교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홍광표, 2016).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이타적이고 협조적이며 겸손한 특성을 갖는다(홍광표, 2016; 손주영, 2014; 이길환·이덕로·박상석, 2011).

신경증 또는 정서불안정성은 심리·정서적으로 부적응이나 불안정한 정도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과 초조함, 번덕스러운 감정 변화의 성격이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경향을 갖는다(홍광표, 2016; 손주영, 2014; Costa & McCrae, 199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Big-5(five) 성격특성이 삶의 인식과 행복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드물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 Big-5(five) 성격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국·내외 모두 외향성과 신경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외향성은 행복수준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정실·박영신, 2016; 구재선·심의철, 2006; 구본용·유제민, 2005; 김명소·성은현·김혜원, 1999; 이인혜, 1997; Belsky, Jaffee, Caspi, Moffitt & Silva, 2003; Diener & Lucas, 1999; DeNeve & Cooper, 1998). 일부 국내연구에서는 성실성이 행복수준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구재선·심의철, 2006) 인지적 능력과 성취수준이 강조되는 한국적 상황 하

에서 성실성이 주요 영향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3. 삶의 인식 및 판단 특성 요인: 통제소재 및 상호성

삶의 인식수준은 개인이 설정해 놓은 삶의 기준에 자신의 삶의 질이 일치할 경우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낮는데, 자신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Big-5 성격특성 이외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정서특성이 작용한다. 심리학자들은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와 상호성(reciprocity)이 그 과정에 개입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설명한다(이병관, 2013; 유봉호, 2013; 김세정, 2008; 권재원, 1991; Veenhoven, 1991).

통제소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행동들이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에서 귀인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서 귀인 하는지, 어디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성격유형이 구분된다는 개념으로 Rotter(1966)에 의해 정리되었다(김세정, 2008).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이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적 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가 높은 것이나, 사건이 외부 상황이나 환경의 힘 또는 운 등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여 자신이 그 결과를 통제 할 수 없다고 지각한다면 ‘외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가 높은 것이다(이병관, 2013; 김세정, 2008). 통제소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내적 통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도 높다(이병관, 2013; 임주연·전귀연, 2004; Veenhoven, 1991). 또 내적 통제가 높은 사람이 환경의 변화를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긴장이나 좌절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며(이병관, 2013), 자신의 일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높다(유봉호, 2013).

이와 같은 통제소재와 더불어 상호성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다. 개인의 가치체계에 존재하는 상호성은 두 가지, 즉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신도 그에 보답하려고 하는 정적 상호성(positive reciprocity)과 모세율법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부적 상호성(negative reciprocity)으로 구분된다(고재홍, 1997).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대체로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브루노 S., 2015),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행복의 수준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새로운 보조선 하나가 바로 ‘동료’등 일

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타인이다(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인식체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 경향을 나타내는 상호성도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심리·정서특성으로서의 통제소재 및 상호성은 앞서 논의한 'Big-5 성격특성'과 함께 본 연구의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으로 분석 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찰한 객관적 요인들과 주관적 심리·정서적 특성의 요인들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결과, 즉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현상과 같은 내용을 실증분석에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적인 변수들, 예컨대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실제 임금과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의 격차 등을 실증분석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에 수집된 한국노동패널 18차 가구, 개인, 부가조사(삶의 인식)자료를 병합하여 생성한 자료이다. 가구단위 자료에서는 가구소득 변수를 추출하고, 개인단위 자료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 청년의 주된 일자리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삶의 인식' 부가조사 자료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심리·정서특성과 삶의 인식 수준 및 전반적인 행복도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병합된 자료에서 조사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만15세~만29세의 청년들을 선별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1,55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년세대를 만15세~만29세로 설정한 것은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와 같은 연령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34세까지 연령 범주가 확대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 고용에 관한 연구가 아니므로 기본 연령범위인 29세 까지로 한정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연구들이 세대구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년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명숙, 2015: 184-185)는 선행연구의 문제제기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1,55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그리고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과 관련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취업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다 분화되어 동질적이지 않은 하위집단으로 존재한다는 선행연구 고찰의 내용 반영하여 가구소득수준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이상 또는 미만이면서 청년 당사자가 취업상태인 경우와 비취업 상태인 경우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변수 및 방법

1) 분석 변수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분석 변수를 크게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우선 객관적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여부, 학력수준과 취업한 청년들의 취업지위 및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직종, 월 소득, 일자리 만족도, 좋은 일자리의 최소 임금수준과 실제 임금수준의 격차, 하는 일과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가 해당한다. 성별과 학력수준, 그리고 월 소득을 제외한 취업관련 특성들은 가변수로 분석되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가구소득과 취업자의 월 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Big5 성격특성, 통제소재, 상호성, 현재 삶의 만족도와 5년 후 삶의 만족도의 비교 집단을 구성하였는데, Big5 성격특성, 통제소재, 상호성의 심리·정서특성은 각 하위요소별 산출된 평균 점수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고, 현재와 5년 후 삶의 만족도 비교 집단은 가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1-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변수값	형태
객관적 요인	성별	0(남성), 1(여성)	더미
	연령	만 연령(세)	연속
	가구소득	log가구소득(연소득 만원)	연속
	취업여부	0(미취업), 1(취업)	더미
	학력	1(고졸), 2(2년제), 3(4년제)	연속

변수		변수값	형태	
	종사상지위	0(일용), 1(상용), 1(임시), 1(고용/자영/무급)	더미	
	정규직 여부	0(비정규직), 1(정규직)	더미	
	직종	0(서비스, 판매직), 1(관리직, 전문가), 1(사무직), 1(농림어업, 기능직, 장치조작직, 단순노무),	더미	
	월소득	log(월평균소득 만원)	연속	
	현재 일자리 만족도	1(매우 불만족스럽다)~5(매우 만족스럽다)	연속	
	현재 하는 일 만족도	1(매우 불만족스럽다)~5(매우 만족스럽다)	연속	
	좋은 일자리 최소 임금 수준과 실제 임금의 격차	좋은 일자리라고 할 때 최소 임금수준 월평균(만원) - 현재 일자리에서의 본인 실제 월평균 소득(만원)	연속	
	일의 교육수준 적합도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하는 일은 1(수준이 매우 낮다)~5(수준이 매우 높다)	연속	
	일의 기술수준 적합도	기술(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하는 일은 1(수준이 매우 낮다)~5(수준이 매우 높다)	연속	
주관적 요인	BIG5 성격	개방성	개방성 관련 3개 문항의 평균(7점 만점) 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속
		성실성	성실성 관련 3개 문항의 평균(7점 만점) 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속
		외향성	외향성 관련 3개 문항의 평균(7점 만점) 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속
		친화성	친화성 관련 3개 문항의 평균(7점 만점) 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속
		신경증	신경증 관련 3개 문항의 평균(7점 만점) 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속
	통제소재	내적	내적성향 관련 4개 문항 평균(7점 만점)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전적으로 동의한다)	연속
		외적	외적성향 관련 6개 문항 평균(7점 만점)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전적으로 동의한다)	연속
	상호성	긍정	긍정적 상호성 관련 3개 문항 평균(7점 만점)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연속
		부정	부정적 상호성 관련 3개 문항 평균(7점 만점)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연속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비해당), 1(해당)	연속
삶의 인식수준		0(최악의 상태)~10(최선의 상태)	연속	
전반적 행복도		0(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	연속	

2) 측정도구

(1) 설명변수: 주관적 요인

- Big5 성격특성

한국노동패널 18차 ‘삶의 인식’부가조사에서는 Big5 성격특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들을 각 3개의 항목으로 총 15개 항목을 구성하여 7점 척도(1.나와는 전혀 다르다~7.나와 완벽히 일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98$ 이다. 개방성의 세 가지 측정 항목은 ‘①나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②예술적 체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③나는 상상력이 아주 많다’ 이고, Cronbach's $\alpha = .736$ 이다. 성실성의 세 가지 측정 항목은 ‘①일을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한다, ②계을 정도로 느긋한 편이다(역 항목), ③일처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이고, Cronbach's $\alpha = .534$ 이다. 외향성의 세 가지 측정 항목은 ‘①사람들과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②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③나는 내성적 인편이다(역 항목)’이고, Cronbach's $\alpha = .625$ 이다. 친화성의 세 가지 측정 항목은 ‘①다른 사람들에게 무뚝뚝한 편이다(역 항목), ②남과 싸워도 금방 화해하는 성격이다, ③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친절할 편이다’이고, Cronbach's $\alpha = .517$ 이다. 신경증의 세 가지 측정 항목은 ‘①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②매사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③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느긋한 편이다’이고, Cronbach's $\alpha = .527$ 이다.

- 통제소재

통제소재는 내적통제 4개, 외적통제 6개로 총 10개 항목을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구성 요소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61$ 이다. 내적통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은 ‘①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②누구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③누구나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④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이고, Cronbach's $\alpha = .580$ 이다. 외적통제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항목은 ‘①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②인생의 성공은 운명이나 행운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③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이다, ④내 인생의 기회는 무엇보다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에 좌우된다, ⑤선천적 재능이 개개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⑥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고, Cronbach's $\alpha = .704$ 이다.

- 상호성

상호성은 긍정과 부정 각각 3개 항목의 총 6개 항목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구성 요소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1$ 이다. 긍정의 상호성 세 가지 항목은 '①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나도 보답할 용의가 있다, ②나에게 친절히 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도와주겠다, ③이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이고, Cronbach's $\alpha = .861$ 이다. 부정의 상호성 세 가지 항목은 '①누가 나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쳤다면 나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즉시 되갚을 것이다, ②누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면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되갚을 것이다, ③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맞받아칠 것이다'이고, Cronbach's $\alpha = .866$ 이다.

본 연구의 자료가 대규모 패널조사 자료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제한된 항목으로 측정하다보니 일부 하위 요소들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인 0.6보다 낮은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들 요소가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연구(G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자료를 비롯하여 해외패널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사용되는 척도임을 고려하여 다소 신뢰도가 낮은 하위요소들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

한국노동패널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는 OECD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측정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가통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의 내용을 준용하고, 관련 핵심 변수 6개를 측정하였다(OECD, 2013; 한국노동패널 1-18차 유저가이드: 106).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문항들 중 OECD에서 '삶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사용 권고하는 삶의 인식 변수, 즉 삶에서 가능한 최악을 상태를 맨 아래 0,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꼭대기 10으로 놓는 사다리(Cntril ladder)를 상정한 후, '지금의 삶이 현재 그 사다리에서 몇 번째에 칸에 있다고 느끼는가?'의 질문을 통하여 삶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같은 측정 척도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행복도, 즉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였다. 이들 두 가지는 모두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이기는 하나, 측정방식에 따라 그 영향 요인이 달라지는가를 영향요인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을 두 가지 분석 방법, 즉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서열로짓분석(Ordered Logi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두 가지 분석방법을 모두 선택한 것은 삶의 인식과 만족도 또는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이 학문 분야에 따라, 즉 심리학자들은 5점 또는 7점 등으로 측정된 주관적 행복의 정도를 기수적 점수(cardinal scores)로 간주하여 회귀분석(OLS)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이를 순서화된 서열척도로 측정된 서수(ordinal numbers)로 보고 서열프로빗이나 서열로짓과 같은 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 행복의 측정과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최근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척도로 측정값을 기수로 또는 서수로 볼 것인지는 결과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불변의 관측되지 않는 요인들(time-invariant unobserved factors)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Ferrer-i-Carbonell & Frijter, 2004: 655).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변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종속변수의 값이 기수인지 서수인지를 가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성격을 비롯한 심리적 기제들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성질을 갖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으로 간주된다(Wood, Maltby, Stewart, Linley, & Joseph, 2008; 송준호·우문식, 2013; 윤성민·신희천,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한 것은 이와 관련한 국내의 실증분석 연구의 축적이 부족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을 연구하는데 있어 활용되는 분석방법론에 있어 국내의 경험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두 분석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왜곡된 추정값을 가질 수 있는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LS 추정 결과와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 추정(2SLS: 2 Stage Least Square)의 결과를 Hausman-test를 통해 검정하고, 내생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자 특성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부터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2%p 정도 많으며, 연19세 이하부터 29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25세를 기준으로 25세 이하 연령대가 65% 가량을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23.9세이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5,579.7만원 수준이다.

[표 1-2]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 평균 점)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555	100.0
사회·인구 학적특성	성별	남성	752 48.4
		여성	803 51.6
	연령	19세 이하	195 12.5
		20~22세	371 23.9
		23~25세	445 28.6
		26~27세	268 17.2
		28~29세	276 17.7
		평균(편차)	23.9 (3.2)
	가구소득 (연평균)	3000만원 미만	408 26.2
		3000만원~4500만원 미만	304 19.5
		4500만원~7000만원 미만	421 27.1
		7000만원 이상	422 27.1
		평균(편차)	5,579.7 (4,046.7)
	학력수준	2년제 대학 재학	161 10.4
4년제 대학교 재학		493 31.7	
고등학교 졸업		316 20.3	
2년제 대학 졸업		265 17.0	
4년제 대학교 졸업		320 20.6	
취업여부	취업	657 42.3	
	미취업	898 57.7	

구분		사례수	비율	
취업자 취업특성	종사상지위	상용직	477	72.6
		임시직	135	20.5
		일용직	24	3.7
		고용/자영/무급가족	21	2.2
	직종	관리자·전문가	201	30.6
		사무직	156	23.7
		서비스직·판매직	168	25.6
		농림어업·기능직·장치조작직·단순노무	132	20.1
	정규직 여부	정규직	241	36.7
		비정규직	416	63.3
월소득	130만원 미만	145	22.1	
	130만원~170만원 미만	161	24.5	
	170~200만원 미만	112	17.0	
	200~250만원 미만	130	19.8	
	250만원 이상	109	16.6	
	평균(표준편차)	184.6	(197.8)	
현재 일자리만족도 (1~5점)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3.27	(0.59)	
	전반적 일 만족도	3.36	(0.60)	
좋은 일자리의 최소 임금수준 인식	좋은 일자리 월 최소 임금(만원)	278.03	90.72	
	좋은 일자리 최소 임금과 실제 월소득의 격차(만원)	93.45	195.66	
현재 하는 일의 교육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 (1~5점)	교육수준 적합도	2.81	0.47	
	기술수준 적합도	2.84	0.45	
현재와 5년 후 삶의 만족도 비교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1,040	66.9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515	33.1	
삶의 인식 수준(0~10점)		5.89	(1.4)	
전반적 행복도(0~10점)		6.15	(1.37)	

이어 취업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42.3%가 취업자이고,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율이 72.6%이며, 36.7%가 정규직이다. 직종별로는 직업 대분류상의 관리 및 전문가로 분류되는 관리직 종사자의 비율이 30.6%로 가장 많고, 서비스·판매직(25.6%), 사무직(23.7%) 순으로 많다.

농림어업·기능·장치조작·단순노무(20.1%)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6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의 결과에서 기능·기계조작종사의 비율이 14.3%라는 결과(통계청, 2016.07.21.)에 비추어볼 때,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보다는 기능·장치조작종사자의 비율이 반영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보면, 전체 평균 184.6만원이며, 46.6%가 중위값(17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며 130만원~170만원 소득을 받는 이들이 24.5%로 가장 많다. 5점 척도(매우 불만 1~매우 만족 5)로 측정한 일자리와 일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3.27점과 3.36점이며, 같은 방식의 5점 척도(매우 낮다 1~매우 높다 5)로 측정한 하는 일과 자신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의 경우 보통수준보다 낮은 2.81점과 2.84점을 보인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월 최소 임금수준은 278.03만원이며, 이는 실제 본인의 월소득과 평균 93.45만원의 차이가 있다.

한편,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5년 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석대상자의 66.1%가 5년 후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고 33.1%가 5년 후 보다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 분석 대상 청년들의 삶의 상태에 대한 인식 수준과 행복정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삶(5.89 점)보다는 전반적인 행복도(6.15 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특성을 보인다.

2. 삶의 인식수준의 영향요인

1) 전체 및 취업자 집단

0에서 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에서 0이 적힌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을 가장 최악의 상태로, 10이 적힌 맨 꼭대기의 칸을 최선의 상태로 가정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를 삶의 인식수준으로 정의하고, 다중회귀와 서열로짓 모델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1-3>부터 <표 1-5>까지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의 분석한 결과 <표 1-3>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요인 중에서 성별과 학력이, 주관적 요인으로서 성격특성 및 통제소재와 상호성,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도와 5년 후 삶의 만족도의 비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들 중 외적 통제소재와 부정의 상호성만이 부(-)의 영향 요인이고, 그 외 변수들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들 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 다섯 가지 Big5 성격특성 변수 중 개방성과 성실성, 친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적·지적 자극에 대한 관심과 수용정도가 높고,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지키며 책임감 강하고 계획성 있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3] 삶의 인식수준 영향요인: 전체 및 취업자

변수	전체		취업자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60 (.047)**		0.97 (0.99)	
성별(여성)	0.05 (0.06)*	0.13 (0.09)	0.02 (0.11)	0.09 (0.17)
연령	0.02 (0.01)	0.07 (0.01)	0.02 (0.02)	0.03 (0.03)
학력	0.07 (0.04)**	0.16 (0.06)**	0.02 (0.07)	0.00 (0.10)
log가구소득	0.02 (0.02)	0.01 (0.02)	0.00 (0.02)	-0.01 (0.03)
취업여부(취업)	0.02 (0.07)	0.10 (0.10)	- -	- -
종사상지위(상용)			-0.08 (0.31)	-0.16 (0.45)
종사상지위(임시)			-0.05 (0.28)	-0.24 (0.40)
종사상지위(고용/자영)			-0.01 (0.40)	-0.17 (0.56)
정규직여부(정규직)			0.09 (0.17)	0.21 (0.26)
직종(관리·전문직)			0.00 (0.15)	0.12 (0.22)
직종(사무직)			-0.05 (0.16)	-0.16 (0.22)
직종(농림/기능·장치조작/ 단순노무)			-0.11 (0.16)*	-0.40 (0.23)
log월평균 소득			0.09 (0.08)	0.17 (0.12)
일자리만족도			0.14 (0.14)*	0.51 (0.20)*
일(업무)만족도			-0.04 (0.14)	-0.09 (0.20)
좋은 일자리 임금수준과 실제임금의 격차			-0.08 (0.04)*	-0.13 (0.06)*
일자리 교육수준 적합도			-0.09 (0.24)	-0.16 (0.34)
일자리 기술수준 적합도			0.13 (0.25)	0.16 (0.36)
Big5 성격-개방성	0.05 (0.03)*	0.12 (0.05)*	0.01 (0.06)	0.06 (0.08)
Big5 성격-성실성	0.11 (0.04)***	0.24 (0.05)***	0.04 (0.06)	0.11 (0.09)

변수	전체		취업자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Big5 성격-외향성	0.05 (0.04)	0.15 (0.06) [*]	0.06 (0.07)	0.21 (0.10) [*]
Big5 성격-친화성	0.07 (0.05) [*]	0.14 (0.07)	0.04 (0.08)	0.08 (0.12)
Big5 성격-신경증	-0.03 (0.04)	-0.03 (0.05)	0.00 (0.07)	0.04 (0.10)
내적 통제소재	0.16 (0.05) ^{***}	0.54 (0.08) ^{***}	0.20 (0.09) ^{***}	0.75 (0.13) ^{***}
외적 통제소재	-0.06 (0.04) [*]	-0.12 (0.06) [*]	-0.04 (0.07)	-0.15 (0.10)
긍정상호성	0.14 (0.03) ^{**}	0.28 (0.05) ^{***}	0.14 (0.06) ^{**}	0.32 (0.09) ^{***}
부정상호성	-0.08 (0.02) ^{**}	-0.13 (0.04) ^{**}	-0.14 (0.05) ^{***}	-0.25 (0.07) ^{***}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06 (0.06) [*]	0.20 (0.09) [*]	-0.01 (0.11)	-0.04 (0.16)
/cut1		-0.31 (.98)		1.50 (1.59)
/cut2		1.65 (.73)		2.62 (1.48)
/cut3		3.60 (.69)		4.60 (1.45)
/cut4		4.68 (.69)		5.62 (1.45)
/cut5		6.28 (.7)		7.28 (1.46)
/cut6		7.59 (.7)		8.69 (1.47)
/cut7		9.18 (.71)		10.28 (1.48)
/cut8		11.40 (.75)		12.91 (1.52)
/cut9		13.00 (.84)		14.45 (1.64)
N		1,555		657
F	26.31 ^{***}		8.45 ^{***}	
Adj.R ²	0.19		0.23	
Log likelihood		-2497.96		-1026.67
LR chi ²		379.32 ^{***}		224.38 ^{***}

주: 추정계수는 표준화계수.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이하 표 동일).

또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행동들을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소재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을 하려고 하는 긍정의 상호성이 높을수록 삶의 인식수준이 높은 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행동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외적통제소재와 타인에게 받은 피해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부정의 상호성이

높을수록 삶의 인식수준은 낮다. 이에 더하여, 현재 삶의 만족도가 예측되는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삶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전체집단과 함께 제시된 취업자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 특성 변수로 농림/기능·장치조작/단순노무 직종(-)과 일자리 만족도(+), 좋은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실제 자신의 임금과의 격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요인으로서 외향성(+), 내적 통제소재(+), 긍정의 상호성(+), 부정의 상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부(-)의 영향을 미치는 농림/기능·장치조작/단순노무 직종은 다중회귀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Big5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서열로짓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체로 객관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주관적 요인에 비해 작는데 비해, 취업자 집단의 일자리만족도의 영향력 크기(.14)가 주관적 요인에 비해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중회귀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기는 하였으나, 농림/기능·장치조작/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서비스·판매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영향력 크기(-.11)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저임금·단순노동의 일을 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 가구소득 수준 및 본인 취업여부에 따른 하위 집단

가구 소득수준과 청년 본인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개의 집단 각각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1-4>와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집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며, 어떠한 요인도 네 집단 모두에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소득과 본인 취업 여부에 따른 청년세대의 하위집단이 이질적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의 상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내적 통제소재가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인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이라는 결과이다. 중위소득 이상+ 취업자 집단에서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열로짓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성실성과 내적 통제소재가 정(+)의 영향, 부정의 상호성이 부(-)의 영향 요인이며 내적 통제소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22)을 갖는다. 같은 중위소득 이상이면서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 객관적 요인으로서 연령과 학력이 정(+)의 영향을, 주관적 요인으로서 개방성, 성실성, 내적 통제소재, 긍정의 상호성,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큰 집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현재 삶의 만족도와 5년 후 삶의 만족도 비교 집단의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이상 비취업자 집단에서 눈에 띄는 변수는 연령(-)과 학력(+)이다. 이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소득을 갖는 청년일지라도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삶을 인식하는 수준은 낮아지고, 동일한 여건 하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인식 수준은 높다는 의미이다.

[표 1-4] 삶의 인식수준 영향요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집단

변수	중위소득 이상+취업		중위소득 이상+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69 (1.08)		3.01 (0.81)***	
성별(여성)	0.02 (0.14)	0.12 (0.22)	-0.02 (0.11)	-0.14 (0.17)
연령	0.09 (0.03)	0.09 (0.04) ⁺	-0.12 (0.02)**	-0.10 (0.03)**
학력	-0.01 (0.09)	-0.03 (0.14)	0.12 (0.08)**	0.37 (0.13)**
Big5 성격-개방성	0.03 (0.08)	0.14 (0.13)	0.11 (0.07) ⁺	0.21 (0.10) ⁺
Big5 성격-성실성	0.13 (0.09) ⁺	0.31 (0.14) ⁺	0.15 (0.07)**	0.32 (0.11)**
Big5 성격-외향성	0.11 (0.10)	0.25 (0.17)	0.03 (0.08)	0.09 (0.12)
Big5 성격-친화성	0.06 (0.12)	0.16 (0.19)	0.05 (0.09)	0.16 (0.14)
Big5 성격-신경증	-0.03 (0.09)	-0.10 (0.15)	-0.03 (0.07)	-0.02 (0.11)
내적 통제소재	0.22 (0.12)***	0.77 (0.20)***	0.10 (0.10) ⁺	0.46 (0.16)**
외적 통제소재	-0.01 (0.09)	-0.02 (0.14)	-0.05 (0.08)	-0.12 (0.12)
긍정상호성	0.07 (0.08)	0.14 (0.13)	0.15 (0.07)**	0.27 (0.10)**
부정상호성	-0.15 (0.07) ⁺	-0.27 (0.11) ⁺	-0.07 (0.05)	-0.10 (0.07)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07 (0.15)	-0.35 (0.23)	0.09 (0.12) ⁺	0.29 (0.18)
/cut1		3.01 (2.00)		-1.53 (1.57)

변수	중위소득 이상+취업		중위소득 이상+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cut2		5.27 (1.77)		1.22 (1.24)
/cut3		6.51 (1.76)		2.76 (1.23)
/cut4		8.46 (1.78)		4.41 (1.24)
/cut5		9.90 (1.81)		5.77 (1.25)
/cut6		11.24 (1.82)		7.33 (1.27)
/cut7		14.28 (1.93)		9.26 (1.30)
/cut8		-		10.60 (1.39)
N		306		472
F	6.20***		9.79***	
Adj.R ²	0.18		0.19	
Log likelihood		-463.33		-746.81
L.R chi ²		77.69***		122.52***

중위소득 미만 집단에서는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성별이 객관적 요인으로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 취업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중위소득 미만+취업 집단의 경우 내적 통제소재와 긍정의 상호성이 정(+)의 영향을, 외적 통제소재와 부정의 상호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중위소득 미만+비취업 집단에서는 성실성과 긍정의 상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네 개 집단에서 분석된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이상과 미만의 취업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내적 통제소재가 가장 큰 영향력(중위소득 이상: .22, 중위소득 미만: .22)을 가지며, 비취업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성실성(중위소득 이상: .15, 중위소득 미만: .17)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1-5] 삶의 인식수준 영향요인: 가구 중위소득 미만 집단

변수	중위소득 미만+취업		중위소득 미만+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82 (1.11)		1.48 (0.72) [*]	
성별(여성)	0.11 (0.15) [†]	0.35 (0.20)	0.09 (0.12) [†]	0.34 (0.18)
연령	0.09 (0.03)	0.05 (0.04)	0.05 (0.02)	0.04 (0.03)
학력	0.04 (0.09)	0.05 (0.12)	0.05 (0.08)	0.16 (0.12)
Big5 성격-개방성	-0.02 (0.09)	-0.07 (0.11)	0.06 (0.07)	0.15 (0.10)
Big5 성격-성실성	0.02 (0.08)	0.03 (0.11)	0.17 (0.08) ^{**}	0.38 (0.12) ^{**}
Big5 성격-외향성	0.04 (0.10)	0.18 (0.13)	0.00 (0.08)	0.05 (0.12)
Big5 성격-친화성	0.06 (0.12)	0.11 (0.16)	0.13 (0.11)	0.22 (0.16)
Big5 성격-신경증	0.02 (0.10)	0.21 (0.13)	-0.09 (0.08)	-0.19 (0.12)
내적 통제소재	0.22 (0.13) ^{***}	0.88 (0.17) ^{***}	0.09 (0.11)	0.29 (0.17)
외적 통제소재	-0.09 (0.10)	-0.33 (0.14) [*]	-0.05 (0.08)	-0.08 (0.12)
긍정상호성	0.19 (0.09) ^{**}	0.47 (0.12) ^{***}	0.14 (0.07) ^{**}	0.27 (0.10) ^{**}
부정상호성	-0.15 (0.06) ^{**}	-0.24 (0.09) ^{**}	0.01 (0.06)	0.01 (0.09)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08 (0.16)	0.33 (0.21)	0.08 (0.13)	0.35 (0.19)
/cut1		2.38 (1.60)		2.28 (1.15)
/cut2		3.31 (1.51)		4.06 (1.11)
/cut3		5.19 (1.46)		4.96 (1.10)
/cut4		6.10 (1.46)		6.65 (1.13)
/cut5		7.48 (1.47)		7.98 (1.15)
/cut6		8.79 (1.49)		9.89 (1.18)
/cut7		10.61 (1.53)		12.29 (1.31)
/cut8		12.94 (1.60)		-
/cut9		14.06 (1.70)		-
N	351		426	
F	7.93 ^{***}		9.52 ^{***}	
Adj.R ²	0.20		0.20	
Log likelihood			-567.00	-667.09
LR chi ²			122.11 ^{***}	110.83 ^{***}

3. 전반적 행복도의 영향요인

1) 전체 및 취업자 집단

삶의 인식 수준에 이어,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 전반적인 행복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1-6>부터 <표 1-8>까지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전체의 전반적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요인 중 성별과 학력, 취업여부가 정(+)의 영향을, 주관적 요인으로서 개방성과 성실성, 친화성, 내적 통제소재, 긍정의 상호성이 정(+)의 영향을 신경증이 부(-)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요인 중 취업여부는 서열로짓 모델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이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개방성(.11)과 내적 통제소재(.11)이다.

[표 1-6] 전반적 행복도 영향요인: 전체 및 취업자

변수	전체		취업자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2.65 (0.48)***		0.71 (0.99)	
성별(여성)	0.08 (0.07)**	0.29 (0.09)**	0.04 (0.11)	0.13 (0.16)
연령	-0.02 (0.01)	-0.02 (0.02)	-0.02 (0.02)	-0.01 (0.03)
학력	0.10 (0.04)***	0.27 (0.06)***	0.08 (0.07)*	0.20 (0.10)*
log가구소득	0.05 (0.02)	0.04 (0.03)	0.05 (0.02)	0.04 (0.04)
취업여부(취업)	0.04 (0.07)	0.22 (0.11)*	- -	- -
종사상지위(상용)			0.01 (0.31)	0.14 (0.45)
종사상지위(임시)			0.04 (0.28)	0.14 (0.40)
종사상지위(고용/자영)			0.06 (0.40)	0.66 (0.57)
정규직여부(정규직)			0.06 (0.18)	0.16 (0.25)
직종(관리·전문직)			-0.02 (0.15)	-0.11 (0.22)
직종(사무직)			-0.01 (0.16)	-0.08 (0.23)
직종(농림/기능·장치조작/ 단순노무)			-0.05 (0.16)	-0.33 (0.23)
log월평균 소득			0.07 (0.08)	0.14 (0.11)
일자리만족도			0.19 (0.14)**	0.65 (0.21)**
일(업무)만족도			-0.05 (0.14)	-0.08 (0.20)

변수	전체		취업자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좋은 일자리 임금수준과 실제임금의 격차			-0.06 (0.04)	-0.11 (0.06)
일자리 교육수준 적합도			0.01 (0.24)	0.20 (0.35)
일자리 기술수준 적합도			0.13 (0.25)	0.35 (0.37)
Big5 성격-개방성	0.11 (0.04) ^{***}	0.22 (0.05) ^{***}	0.04 (0.06)	0.06 (0.09)
Big5 성격-성실성	0.06 (0.04) [*]	0.09 (0.06)	0.01 (0.06)	0.00 (0.09)
Big5 성격-외향성	0.03 (0.04)	0.09 (0.06)	0.04 (0.07)	0.12 (0.10)
Big5 성격-친화성	0.09 (0.05) ^{**}	0.20 (0.08) ^{**}	0.07 (0.08)	0.12 (0.12)
Big5 성격-신경증	-0.09 (0.04) ^{**}	-0.17 (0.06) ^{**}	-0.06 (0.07)	-0.12 (0.10)
내적 통제소재	0.11 (0.06) ^{***}	0.37 (0.08) ^{***}	0.13 (0.09) ^{**}	0.44 (0.13) ^{**}
외적 통제소재	-0.01 (0.04)	-0.03 (0.06)	0.02 (0.07)	0.00 (0.10)
긍정상호성	0.09 (0.04) ^{**}	0.15 (0.05) ^{**}	0.09 (0.06) [*]	0.17 (0.08) [*]
부정상호성	-0.04 (0.03)	-0.06 (0.04)	-0.09 (0.05) [*]	-0.14 (0.07) [*]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01 (0.07)	0.01 (0.10)	-0.02 (0.11)	-0.12 (0.16)
/cut1		-2.65 (1.21)		0.67 (1.75)
/cut2		-0.33 (0.75)		4.00 (1.45)
/cut3		1.39 (0.70)		5.08 (1.45)
/cut4		2.60 (0.69)		6.71 (1.46)
/cut5		4.24 (0.70)		7.89 (1.46)
/cut6		5.44 (0.70)		9.50 (1.48)
/cut7		6.94 (0.71)		11.79 (1.50)
/cut8		9.14 (0.73)		12.93 (1.55)
/cut9		10.40 (0.78)		-
N		1,555		657
F	20.44 ^{***}		6.66 ^{***}	
Adj.R ²	0.15		0.18	
Log likelihood		-2520.44		-1041.39
L.R chi ²		277.25 ^{***}		158.62 ^{***}

전체집단의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행복도가 높으며, 개방적이고, 친화적이며, 내적 통제수준과 긍정의 상호성의 수준이 높으며, 정서적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낮은 청년들이 행복도가 높다.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 요인으로서 학력과 일자리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요인으로서 내적 통제소재와 긍정의 상호성이 정(+)의 영향을, 부정의 상호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집단과는 달리, 취업자 집단은 주관적인 요인이 아닌 객관적인 요인이, 즉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가 청년 취업자의 전반적인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력(.19)을 갖는 유일한 하위집단이며, Big5 성격특성 중 어떠한 특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2) 가구소득 수준 및 본인 취업여부에 따른 하위 집단

가구의 소득수준과 본인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개의 하위집단별 전반적 행복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삶의 인식수준에서와 같이 네 집단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다. 그러나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는 친화성과 내적 통제소재가 중위소득 미만 집단에서는 성별과 긍정의 상호성이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각 집단별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이상+취업 집단에서는 주관적 요인으로서 친화성과 내적 통제소재가 정(+)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위소득이상 가구의 취업 청년들의 친화성과 내적 통제소재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인식하는 전반적 행복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높은 집단이 부(-)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결과는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보다 높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 중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현재의 행복도 낮다고 응답한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중위소득이상+취업 집단의 한국 청년들은 일본의 청년들과 같이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역설로서 ‘지금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위소득이상+비취업 집단의 경우 객관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요인으로서 개방성과 친화성, 내적 통제소재가 정(+)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위소득이상+취업 집단에서는 내적 통제소재가 가장 큰 영향력(.17)을 가지는 요인이었으나, 중위소득이상+비취업 집단에서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학력(.15)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중위소득이상+비취업 집단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이다. 이는 삶의 인식수준 분석에서와 같이, 중위소득이상이면서 비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해 낮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행복도 또한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연령수준 높은 청년들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위소득 미만+취업집단에서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요인으로서 내적 통제소재와 긍정의 상호성,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더 큰 집단이 정(+)의 영향을 부정의 상호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영향요인 중 연령과 부정의 상호성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큰 집단은 다중회귀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큰 집단의 영향력이 중위소득이상+취업 집단의 경우와 반대라는 점이다. 이는 희망적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동일하게 직면할 경우, 중위소득 이상의 취업 청년보다는 중위소득 미만의 취업 청년들이 역설적인 현재의 행복도를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7] 전반적 행복도 영향요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집단

변수	중위소득 이상+취업		중위소득 이상+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3.03 (1.10)**		4.78 (0.79)***	
성별(여성)	0.06 (0.15)	0.25 (0.22)	0.06 (0.11)	0.17 (0.17)
연령	0.03 (0.03)	0.02 (0.04)	-0.15 (0.02)**	-0.12 (0.03)***
학력	0.00 (0.09)	0.04 (0.14)	0.15 (0.08)***	0.48 (0.13)***
Big5 성격-개방성	0.12 (0.08)	0.25 (0.13)	0.18 (0.07)**	0.36 (0.10)***
Big5 성격-성실성	0.04 (0.09)	0.04 (0.14)	0.04 (0.07)	0.06 (0.11)
Big5 성격-외향성	-0.03 (0.11)	-0.08 (0.16)	-0.04 (0.08)	-0.05 (0.12)
Big5 성격-친화성	0.15 (0.12)*	0.42 (0.18)*	0.11 (0.09)*	0.25 (0.14)
Big5 성격-신경증	-0.06 (0.10)	-0.13 (0.15)	-0.10 (0.07)*	-0.15 (0.11)
내적 통제소재	0.17 (0.13)*	0.50 (0.19)**	0.08 (0.10)	0.34 (0.16)

변수	중위소득 이상+취업		중위소득 이상+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외적 통제소재	0.10 (0.09)	0.21 (0.13)	-0.05 (0.07)	-0.09 (0.12)
긍정상호성	-0.06 (0.08)	-0.15 (0.12)	0.07 (0.07)	0.14 (0.10)
부정상호성	-0.11 (0.07)	-0.18 (0.10)	-0.01 (0.05)	-0.06 (0.07)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13 (0.15) [†]	-0.54 (0.23) [†]	0.01 (0.11)	0.04 (0.18)
/cut1		0.78 (1.73)		-3.86 (1.57)
/cut2		1.85 (1.71)		-1.90 (1.27)
/cut3		3.80 (1.71)		-0.21 (1.23)
/cut4		5.01 (1.72)		1.65 (1.23)
/cut5		6.49 (1.73)		3.06 (1.24)
/cut6		9.36 (1.81)		4.52 (1.24)
/cut7		10.77 (2.00)		6.67 (1.27)
/cut8		-		7.90 (1.34)
N		306		472
F	3.91 ^{***}		8.73 ^{***}	
Adj.R ²	0.11		0.17	
Log likelihood		-470.97		-732.02
L.R chi ²		46.28 ^{***}		107.20 ^{***}

중위소득미만+ 비취업 집단에서는 객관적인 요인으로서 성별과 학력, 개방성, 긍정의 상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신경증이 부(-)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집단에서는 중위소득이상 집단에서 보이지 않은 성별과 같은 객관적 요인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요인에 있어서도 신경증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가구소득과는 상관없이 취업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내적 통제소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지만, 비취업자 집단에서는 개방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표 1-8] 전반적 행복도 영향요인: 가구 중위소득 미만 집단

변수	중위소득 미만+취업		중위소득 미만+비취업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Multiple Regression	Ordered Logi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98 (1.10)		2.18 (0.75)**	
성별(여성)	0.11 (0.15)*	0.40 (0.20)*	0.09 (0.13)*	0.42 (0.18)*
연령	0.10 (0.03)*	0.06 (0.03)	0.00 (0.02)	0.01 (0.03)
학력	0.11 (0.09)*	0.27 (0.12)*	0.09 (0.08)	0.24 (0.12)*
Big5 성격-개방성	-0.02 (0.09)	-0.09 (0.11)	0.14 (0.07)*	0.34 (0.10)**
Big5 성격-성실성	0.06 (0.08)	0.10 (0.11)	0.06 (0.08)	0.11 (0.12)
Big5 성격-외향성	0.08 (0.10)	0.22 (0.13)	0.08 (0.09)	0.14 (0.12)
Big5 성격-친화성	0.01 (0.12)	-0.05 (0.16)	0.09 (0.11)	0.21 (0.16)
Big5 성격-신경증	-0.08 (0.09)	-0.12 (0.13)	-0.10 (0.08)*	-0.27 (0.12)*
내적 통제소재	0.15 (0.13)*	0.54 (0.17)**	0.05 (0.12)	0.19 (0.17)
외적 통제소재	-0.07 (0.10)	-0.24 (0.14)	0.03 (0.08)	0.08 (0.12)
긍정상호성	0.17 (0.09)**	0.35 (0.11)**	0.13 (0.07)*	0.19 (0.10)
부정상호성	-0.11 (0.06)*	-0.16 (0.09)	0.02 (0.06)	0.09 (0.09)
현재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	0.10 (0.16)*	0.39 (0.21)	0.00 (0.13)	-0.04 (0.19)
/cut1		-0.53 (1.76)		1.50 (1.15)
/cut2		2.47 (1.47)		2.52 (1.12)
/cut3		3.53 (1.46)		3.73 (1.12)
/cut4		4.87 (1.47)		5.46 (1.13)
/cut5		5.93 (1.47)		6.66 (1.14)
/cut6		7.61 (1.50)		8.29 (1.17)
/cut7		9.58 (1.54)		10.57 (1.24)
/cut8		10.65 (1.59)		12.39 (1.54)
N	351		426	
F	6.93***		7.58	
Adj.R ²	0.18		0.16	
Log likelihood			-577.25	-682.54
L.R chi ²			84.97***	95.84

V. 주요 발견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어떠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와 서열로짓 모델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는 자신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인식(5.89점)보다 전반적인 행복정도(6.15점)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학생 집단이 전체 청년세대의 평균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삶의 수준과 행복도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일차적으로 소득수준 그리고 이차적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여 중위소득이상+취업자 집단 청년들의 삶의 인식(6.07점)과 행복도(6.15점)가 가장 높고, 중위소득미만+비취업자 집단의 청년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인식(5.66점)과 행복도(5.89점)를 보였다. 이와 같은 동일 연령 집단 내 행복감의 편차가 크다는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한 김재우(2017)의 연구에서도 이미 포착된 바 있다. 이는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격차가 청년세대에 집중화되면서 그 격차만큼이나 청년세대가 삶을 인식하고 행복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세대 내 격차가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정서적인 특성의 주관적인 요인이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청년세대의 모든 하위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예컨대 취업 청년들의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에는 주관적 요인들의 영향력도 크지만, 그 보다는 현재 일자리 만족도라는 취업특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여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의 결정요인을 추정함에 있어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의 포괄적 반영이 매우 중요하며, 취업 청년들에게 있어 일자리에 대한 만족이 자신의 삶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 행복수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성격특성은 취업자집단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내적 통제소재와 긍정과 부정의 상호성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수준과 행복수준을 인식하는데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던 심리적 특성들의 범주가 분석 대상자에 따라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에 비해 삶의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거나 희망하는 임금과 현실의 임금 수준의 격차가 큰 청년들이 삶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지만, 전반적인 행복수준을 인식할 때에는 이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OECD에서 권고하는 사다리형(Cantril ladder) 삶의 수준 측정과 전반적인 행복도가 개념상으로는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의 단위로 묶일 수는 있으나, 삶의 인식에 대한 평가가 보다 현실 상황이 조금 더 반영되고, 전반적인 행복도는 삶의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응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Big-5 성격특성을 비롯하여 그동안 시간불편의 관측되지 않았던 개인의 특성, 즉 삶을 인식하고 행복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통제소재와 상호성은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과 행복도를 평가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섯 가지 성격특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인식수준이나 행복수준에 공통적으로 개방성과 성실성, 그리고 친화성의 성격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행복도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외향성(+)과 신경증(-)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청년들의 삶의 수준과 행복수준 인식에 Big-5 성격특성 중 성실성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일부 국내 선행연구(구재선·심의철, 2006)의 결과를 지지하며, 동시에 행복도 보다는 삶의 인식수준에 성실성의 영향이 각 하위집단별로 나누었을 때에도 나타난다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서구의 연구들에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실성이 한국의 청년세대의 삶의 수준과 행복인식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사회가 성실성을 측정하는 항목들, 즉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느긋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일처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성향을 갖춘 이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회문화 속에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세대 전반에서 일본의 청년세대와 같이,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거나 행복하다는 역설적 긍정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 행복도 영향 요인 분석에 있어, 현재 삶의 만족도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도가 높다는 결과에 기초해 본다면, 역설적 긍정응답의 경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역설적 긍정의 응답을 할 가능성은 중위소득이상+비취업 집단 또는 중위소득미만+취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의 청년세대들이 일본의 청년세대와 같은 행복도에 대한 역설적 긍정 응답의 경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향성은 청년

세대 전반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일부 하위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절망의 역설적 반응으로 현실의 삶의 수준이나 행복수준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토리세대와 같은 이들의 등장은 현시점에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 즉 중위소득이상이면서 비취업상태에 있거나 중위소득 미만이면서 취업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는 이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인식하고 행복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치하지 않으며, 청년세대의 하위집단별 영향 요인 또한 상이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0~10점의 척도로 측정된 값을 기수로 또는 서수로 간주하여 적용된 두 가지 분석방법, 즉 다중회귀분석과 서열로짓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자신의 삶의 상태를 인지하는 기제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행복감을 인지하는 기제가 상이함을 의미하며, 그 기제가 하위집단별로도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삶의 인식과 전반적인 행복의 측정 방식은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호 보조적인 개념으로 활용은 할 수 있으나, 완전 대체의 개념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고 학술적·정책적 연구에 활용하는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삶의 상태를 인식하는 수준과 전반적인 행복도를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하위집단별 차이는 어떠한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호철, 이도화(2016).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행위결과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3(2), 129-151.
- 고영남(2012).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안녕감(well-being)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8(3), 49-71.
- 고재홍(1997). 우리는 늘 받은 만큼 되갚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53-75.
- 구본용, 유재민(2005). 성격 및 환경요인과 행복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6(1), 1-7.
- 구재선, 심의철(2006). 심리적 특성, 생활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구재선,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권재원(1991). Locus of Control 에 관한 고찰. *인문연구*. 13(1), 99-124.
- 김두선, 서현주(2015). 직업심리검사결과를 활용한 노동시간 성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김세정(2008). 대학생의 통제소재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진로 탐색 행동. *진로교육연구*. 21(2), 93-107.
- 김재우(2017). 한국과 일본인의 주관적 행복: 생애주기별 결정요인 비교. *한국사회학*, 51(4), 1-46.
- 김정실, 박영신(2016). 성격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6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12-312.
- 김지경, 정연순(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백선희, 홍영란, 류성창, 장근영, 이기원(2015).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국제 동향. *포지션페이퍼* 12(4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선영(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71-92.
- 박현숙, 권복순(2006).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1), 48-56.
- 브루노 S, 프라이(2015). *행복. 경제학의 혁명. 유정식·홍훈·박종현 옮김*. 서울: 부키(주).
- 서봉언, 김경식(2016).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1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 275-288.
- 손주영(2014). Big5 성격특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십 코드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7(7), 1073-1089.
- 송준호, 우문식(2013). 조직구성원의 성격 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52, 45-65.
-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김현정 옮김. 서울: 사이.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윤성민, 신희천(2013).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활동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5 요인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5(2), 275-308.
- 이기혜, 김경근(2013). 중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3), 139-168.
- 이길환, 이덕로, 박상석(2012). 성격 5 요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1(4), 397-432.
- 이명숙(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병관(2013). 내적통제성과 우연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인간이해*, 42(1), 37-54.
- 이왕원, 정지연, 김문조(2015). 대졸취업자의 임금에 대한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융합인재론의 경험적 검증. *한국HRD연구*, 10(1), 47-76.
- 이원재(2016).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오늘의 불안을 이기는 내일의 경제학. 서울: 에크로스.
- 이인혜(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유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성격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209-219.
- 이자형(2013). 비인지적능력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년취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2(2), 173-206.
- 이자형(2014). 비인지적 능력과 일자리의 관계에 관한 맥락적 이해. *교육사회학연구*, 24(2), 209-241.
- 임주영, 전귀연(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78.
- 조한혜정, 엄기호 외(2016). 노오력의 배신. 경기: (주)창비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통계청(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7. 21).
- 한국노동연구원(2016). 한국노동패널 1-18차년도 유저가이드.
- 한신원(2014). 가정배경에 따른 비인지적 능력의 발달궤적: 불평등 재생산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14 전기 사회학대회. 195-195.
- 홍광표(2016). 청년층의 비인지적 능력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광표, 김문길, 설귀환(2016). 비인지적 능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자료집. 105-120.
- 후루이치노리토시(2016). 희망 난민. 서울: (주)민음사.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171-220.

- Argyle, M., & Lu, L. (1990). "Happiness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12), 1255-1261.
- Ash, C., & Huebner, E. S. (2001). "Environmenta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test of cognitive media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3), 320-336.
- Belsky, J., Jaffee, S. R., Caspi, A., Moffitt, T. & Silva, P. A. (2003).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and their life course,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460-471.
- Casas, F., González, M., Figuer, C. & Coenders, G. (2004). "Subjective well-being, values and goal achiev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123-141
-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form S and form R*.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R. E. Lucas (1999). "11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213-229.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26-935.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403-425.
- Farkas, G. (2003). "Cognitive skills and noncognitive traits and behaviors in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541-562.
- Ferrer-i-Carbonell, A. & P. Frijter (2004). How Important is methodology for the estimates of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Economic Journal*, *114*, 641-659.
- Fogle, L. M.,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Cognitive and behavioral mediation model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4), 373-392.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41-165.
- _____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patholog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81-108.

- Hall, M. & Farkas, G. (2011). "Adolescent cognitive skills, attitudinal/behavioral traits and career wages." *Social Forces*, 89(4), 1261-1285.
- Hayes, N. & Joseph, S. (2003). "Big 5 correlates of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4), 723-727.
- Heckman, J. J. & Rubinstein, Y. (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45-149.
- Heckman, J. J., Stixrud, J. & Urzua, S.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pp. 411-482.
- Huebner, E. S. (1991).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2), 103-111.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ueller, G. & E. Plug (2006). "Estimating the effect of personality on male and female earnings."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0(1), 3-22.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on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Park, S. Y. (2005). "Self-construal and subjective well-being: With a focus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 in two region."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2(3), 71-92.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Roberts, B. W. & Robins, R. W. (2000). "Broad dispositions, broad aspirations: The intersec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major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84-1296.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Weel, B. T. (2008). "The noncognitiv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and behavioral outcomes: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4), 729-737.
- Wiggins, J. S. (eds). (1996).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Wood, A. M., Maltby, J., Stewart, N., Linley, P. A. & Joseph, S. (2008). A social-cognitive model of trait and state levels of gratitude. *Emotion*, 8(2), 281-290.

Abstract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Perceived by Youth Generation

Kim, Jikyung*

In this study, we examined at what level young people perceive their level of life and the overall degree of happiness in their live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m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ordered logit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young people were more aware of the degree of overall happiness than their perception of their liv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young generation's perception of the level of life and the degree of happiness are different and different factors are working on each group.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subjec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the objective factors of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level. However, in the case of the youth group, it was found that objective factors such as job satisfaction are the determinant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awareness and happiness.

The tendency to paradoxically respond to the current level of happiness due to despair of the future has been found to be seen in some subgroups(middle income plus working group) rather than in the whole youth generation.

Key words: Youth generation, Awareness of life, Happiness

◆ 2018. 07. 15. 접수 / 2018. 09. 14. 1차수정 / 2018. 09. 28. 게재확정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jkkim@nypi.re.kr)